

No More Galapagos, Korean Radio

‘Little T’가 여는 가능성

글. 임재윤 MBC 오디오전략파트장
faceit@mbc.co.kr

No more Galapagos,
Korean radio
연재 목차

1. Radiodays Asia 2022 참관기
2. 'Little T'가 여는 가능성
3. 디지털 청취 플랫폼의 끝판왕
4. 라디오 선진국들의 카인포테인먼트 대응
5. 라디오 선진국들의 음성비서 대응



그림 1. <Podnews> 편집장 & Radio futurologist,
James Cridland / 출처 : james.cridland.net

자신을 ‘Radio futurologist’로 소개하는 영국인 James Cridland[그림 1]는 10대 후반이던 1989년부터 라디오방송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라디오 진행자, 라디오 광고 카피라이터, 라디오 전략 컨설턴트, 그리고 지금은 팟캐스트 전문 매체 <Podnews> 편집자로 일하면서 라디오 및 오디오 미디어 분야 오피니언 리더로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라디오와 팟캐스트 산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시시콜콜 SNS에 실어 나르는 동시에 날카롭게 분석하는 칼럼도 씁니다. 이 사람을 통하면 지금 이 업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그야말로 라디오/팟캐스트/음원서비스 업계 최고 마당발이지요.

James의 지난 30여 년 커리어 기간은 기술 변화가 라디오 산업 변화를 이끈 시기였습니다. [그림 2]는 James가 라디오에 입문 하던 시절부터 간직해온 물건인데요, 아마 독자분들 중에는 무엇에 쓰는 도구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James와 연식이 같은 저는 바로 알아봤지만요. 이것들은 라디오를 커다란 릴테잎에 녹음하던 시절, 마그네틱 테잎을 직접 잘라내거나 이어붙이던 편집 도구들입니다(MBC 라디오에선 2000년까지 가위를 썼는데, 영국은 저렇게 일정한 각도로 자르도록 틀을 썼군요). James는 마그네틱 테잎을 이어붙이던 100% 아날로그 시절부터, 테잎이 디지털 파일로 대체되는 제작의 디지털화, D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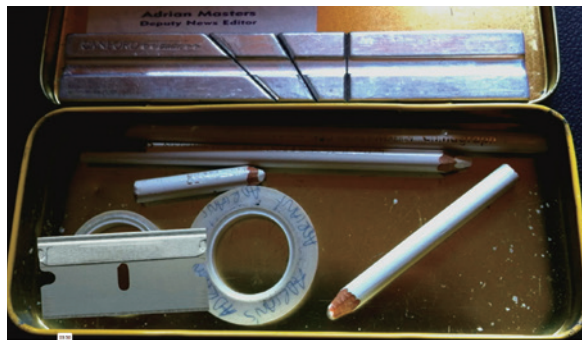


그림 2. James Cridland의 라디오 편집 도구
/ 출처 : Radiodays Asia 2022, Cool new tech for radio that you should be using 세션 영상 캡처. James Cridland

디지털라디오의 도입, 라디오 실시간 스트리밍과 온디맨드(팟캐스트) 활성화, 다양한 오디오 매체들의 등장까지 기술이 라디오를 바꾼 역사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James의 특이한 점은 단지 콘텐츠 제작에 만족하지 않고 신기술을 통한 콘텐츠 유통에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2005년 피쳐폰에서 라디오를 스트리밍으로 듣는 앱을 만들기도 했었고(영국 Virgin Radio), 2007년엔 BBC의 iPlayer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지요. 자신의 직업을 소개할 표현(Radio futurologist)을 스스로 만들 정도로 라디오의 변화와 혁신 맨 앞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Radiodays Asia 2022’ 행사를 통해 글로벌 라디오 산업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 James Cridland의 세션 내용(“Cool new tech for radio that you should be using”)에서부터 풀어가겠습니다.

Big Technology vs Little Technology

영국 방송업계에서는 기존 방송사들이 갖추고 있는 고가의 방송 전문 장비 및 솔루션을 ‘Big T’라 부르고, 이와 상대적으로 저비용, 개인용 IT 디바이스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방송에 활용하는 것을 ‘Little T’라고 합니다. 여기서 ‘T’는 물론 ‘Technology’의 약자이지요. 방송 제작이 디지털화되고 전달도 인터넷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PC, 노트북, 심지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만들고 보내는 일이 가능해졌는데요, 이 ‘Little T’들은 간편하고 저렴하지만 ‘Big T’에 비해 안정성이 약점이어서 메이저 방송사보다는 소규모방송사나 개인, 평상시보다는 특수 상황의 보조적 역할로 쓰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 ‘Little T’들의 성능과 인터넷망의 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제도권 방송에서도 이들을 ‘Big T’ 대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라디오드라마, 생방송 토크처럼 구성이 복잡하고 음향효과가 중요한 경우나, 악기 여러 대를 써야 하는 라이브 공연은 ‘Big T’가 필요하지만, 멘트와 음악이 교대로 나오는 DJ 구성, 인터뷰나 방담 형식에서는 ‘Little T’로도 큰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림 3. ‘Big T’의 대표 사례, BBC Studio London이 위치한 런던 시내 New Broadcasting House / photo by Amy Karle.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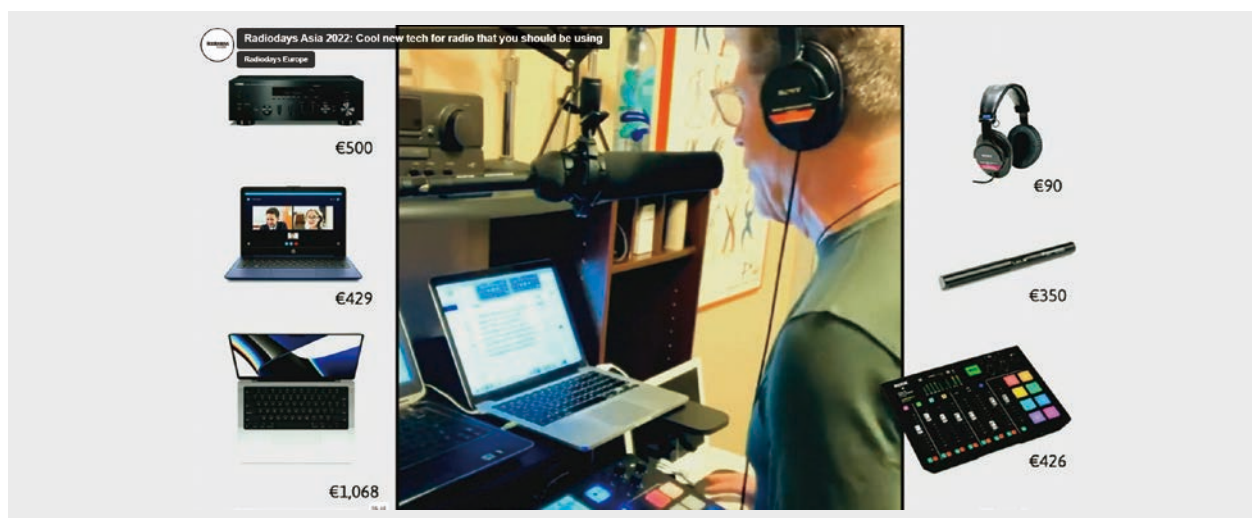


그림 4. 간소화된 Little T의 사례. 뉴욕 WCBS FM의 방송 진행 장면, 그리고 실제 사용되고 있는 장비들 및 가격. 방송 장소는 DJ의 자택 지하실 / 출처 : Radiodays Asia 2022, Cool new tech for radio that you should be using 세션 영상 캡처, James Cridland

‘Little T’의 장점은 단지 낮은 가격과 그로 인한 제작 저변 확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테크를 간소화하여 장소의 제약에서 벗어나면 다양한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격리, 락다운을 거치면서 방송에서도 비대면 제작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교통, 기상 정보를 반복적으로 전하는 단순 구성 프로그램은 재택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도시에 사는 진행자들을 스튜디오에 모으지 않고 원격으로 연결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작년에 런칭한 영국의 시니어 타겟 라디오채널 Boom Radio의 경우, 현역에서 은퇴했던 과거 유명 DJ들이 영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각자의 자택, 각자 원하는 장소(거실, 헛간, 정원 앞 발코니...)에서 ‘Little T’로 간이 스튜디오를 차려서 방송합니다. 첨단 스튜디오를 몰아넣은 근사한 방송사 본사 건물 없이도 ‘분산형 스튜디오’ 방송사를 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림 5. Boom Radio 정오 시간대 DJ를 맡고 있는 David Hamilton. David는 BBC Radio 1과 Radio 2채널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진행할 정도의 스타 DJ였다. 작년부터 Boom Radio에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지만, 스튜디오로 출근하는 대신 Sussex에 있는 자신 농장 주택에서 반려견을 곁에 두고 방송한다
/ 출처: www.boomradiouk.com/david-hamilton

Connection examp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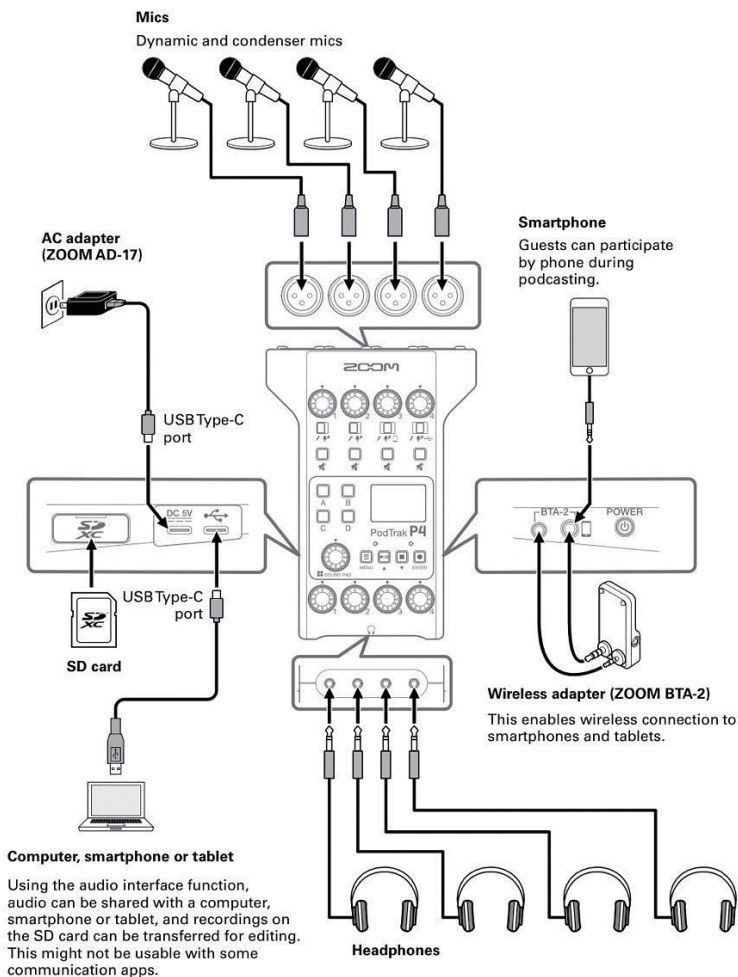


그림 6. 필자의 ‘Little T’, Zoom P4 믹서의 매뉴얼 중에서

필자 역시 최근 멋진 Little T 장비를 발견해서 팟캐스트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송 장비업체 Zoom이 팟캐스터들 니즈에 최적화해서 내놓은 P4라는 모델인데요, 손바닥에 쏙 들어갈 수 있는 초박형 초경량 믹서지만 마이크 4개에 효과음 패드까지 내장하고 있습니다. 일상 잡음에 구애받지 않고 아무 데서나 녹음할 수 있도록 고성능 다이내믹 마이크를 자매품으로 내놔고요. 특히 스마트폰을 바로 물려서 전화 연결하는 기능이 압권입니다. 기존 스튜디오에서 하이브리드 장비를 이용해 전화 연결하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간편하고, 음질도 훌륭합니다. 이 기능 덕분에 제작진들이 스튜디오에서 만날 필요 없이 각자 편한 곳에서 최소 시간으로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있지요. 이 시리즈로 최대 4명 출연까지의 장비를 꾸린다면 비용은 80여만 원 선, 크기는 노트북 백팩에 담을 수 있는 정도인데요, 인터뷰나 DJ쇼 구성의 라디오나 팟캐스트라면 굳이 기존 라디오 스튜디오를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싶더군요. 저라면 아무 데나 펼쳐놓고 방송할 수 있는 장소의 자유를 택할 것 같습니다.

‘Big T’ 솔루션 안 부러운 ‘Little T’ 애플리케이션들

‘Little T’는 장비뿐 아니라 솔루션도 주목할만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 PC 애플리케이션 형태의 강력한 ‘Little T’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James Cridland가 ‘Radiodays Asia 2022’에서 소개한 것들에 몇 가지 더 추가해봤습니다.

원격 비대면 녹음 솔루션, Squardcast와 Riverside FM

화상 회의도 일상인데 비대면 녹음이 뭐 대수인가 싶지만, 온라인에서 복수 제작진의 음성을 오디오 믹서 없이 깔끔하게 녹음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각자의 볼륨을 고르게 조정해서 섞어주는(믹스 다운) 역할을 사람이 아닌 소프트웨어가 수행해야 하니까요. 화상 회의야 참석자들끼리 서로 이해하면 충분하지만, 결과물을 다중에게 들려줘야 하는 콘텐츠의 경우 좀 더 높은 퀄리티가 필요합니다. Squardcast와 Riverside는 비대면 참가자들 녹음을 각자 별도 트랙으로 관리하고 간편한 편집툴을 제공하는 등 비대면 원격 제작 분야의 라이벌들입니다.



그림 7. 원격 녹음 솔루션 Riverside / 출처 : riverside.fm

방송 내용 수정에 재녹음은 필요 없다: Descript

Descript는 음성합성 등 AI 기술을 매우 실용적인 콘텐츠 제작 기능으로 풀어내는 기업입니다. 녹음 대본을 수정하면 원본 오디오까지 수정해주는 기능이 대표적입니다. James가 보여준 예[그림 8]를 보면, 일단 녹음과 동시에 스크립트가 생성되고, 이 스크립트에서 단어를 고치면 수정된 단어가 다시 내레이터의 목소리로 합성되어 원본 오디오에서 교체됩니다. 들어봤더니 정말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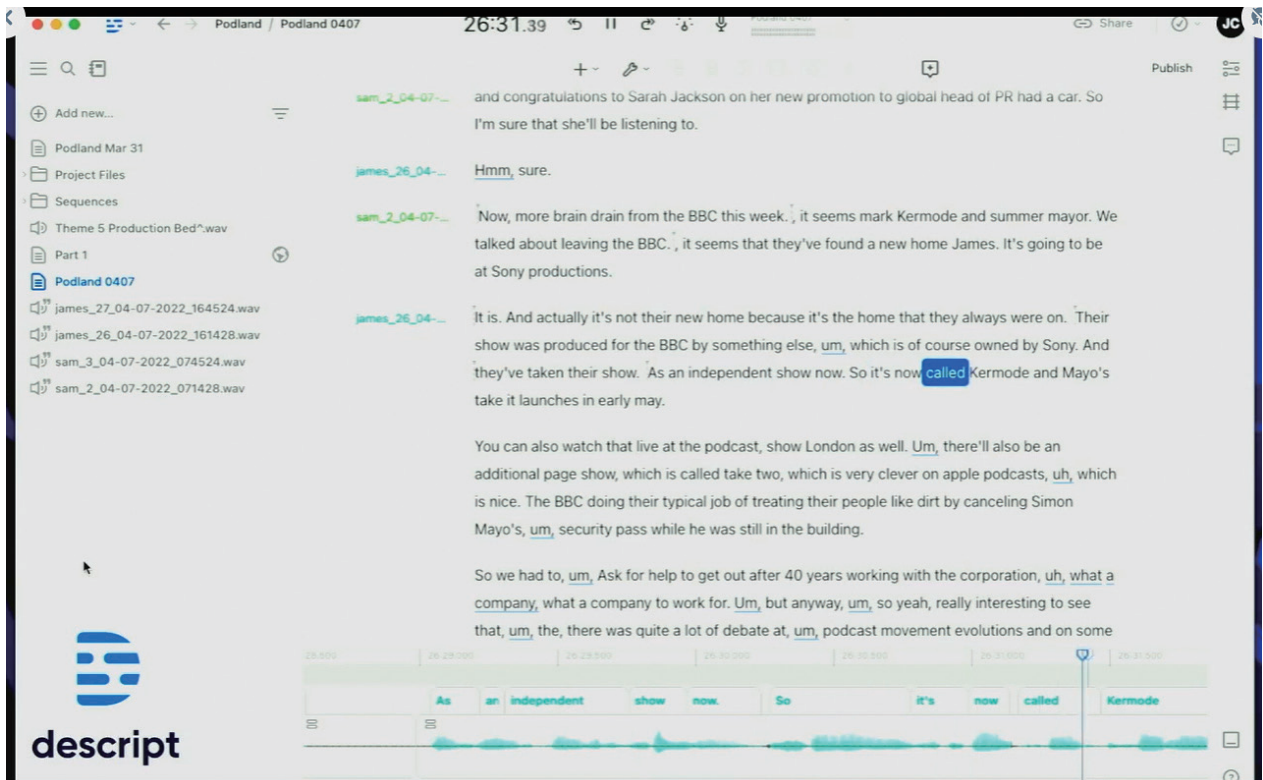


그림 8. Descript에서 대본을 수정하여 오디오를 편집하는 사례 / 출처 : Radiodays Asia 2022, Cool new tech for radio that you should be using 세션 영상 캡처, James Cridland

쪽같더군요. 실수로 표현을 잘못 녹음했어도, 수치 같은 것을 바꿔야 할 경우에도 재녹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AI를 통해서 제작의 상상력을 어디까지 넓힐 수 있는지, Descript 웹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오디오편집을 한 방에 영상으로 만들어 배포한다, Adori와 Headliner

국내에서는 활발하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라디오프로그램이나 팟캐스트 같은 오디오 콘텐츠에서 재미있는 부분을 골라 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렇다 보니 오디오 편집본에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추출하여 이를 영상으로 변환, SNS로 공유하는 일련의 과정을 자동화하여 한 방에 해결하는 솔루션들이 발달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두 개 솔루션인데요, 스마트폰 앱으로도 나와 있어서 쉽게 써볼 수 있습니다. Headliner를 예로 들면, 오디오파일에서 원하는 부분의 편집점을 잡고, 에피소드 관련 이미지 하나를 준비하면 간단한 동영상(스틸이미지 위에서 오디오 파형이 움직이는)이 생성됩니다. SNS 계정들을 미리 걸어놓으면 바로 공유도 되고요.

Spooler

팟캐스트는 온디맨드 미디어입니다. 온디맨드의 장점이 있지만, 실시간성이 아쉬울 때가 있지요. 예를 들어 매시간 최신 뉴스로 바뀌어야 하는 스트레이트 포맷을 팟캐스트 제공할 수는 없을까? 즉, 업데이트가 매우 빠른 간격으로 이뤄져야 하는 콘텐츠인데 이걸 라디오 같은 실시간 매체가 아니라 팟캐스트 플랫폼으로 전하고 싶은 니즈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실시간성이 가미된 온디맨드 콘텐츠를 구현하고자 등장한 솔루션이 Spooler입니다. 애플 팟캐스트의 핵심으로 10년 넘게 일했던 James Boggs가 업계 친구들과 창업한 스타트업인데요, 제 설명이 이해하기 힘들다면 <The Refresh>라는 뉴스 팟캐스트를 한 번 들어보세요.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오늘은 해외 라디오와 팟캐스트 제작에서 실제 활용되고 있는 'Little T' 장비와 솔루션들, 그리고 이들로 가능해진 새로운 콘텐츠 제작법과 미디어 사업 형태를 소개해봤습니다. 이들을 통한 비용 절감에 만족하지 말고, 콘텐츠 비즈니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No more Galapagos, Korean Radio' 시리즈는 새해에 세 번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



그림 9. Headliner로 만든 동영상 클립이 포함된 트윗. 스틸이미지 위에 오디오파형만 움직이는 형태 / 출처 : www.headliner.app/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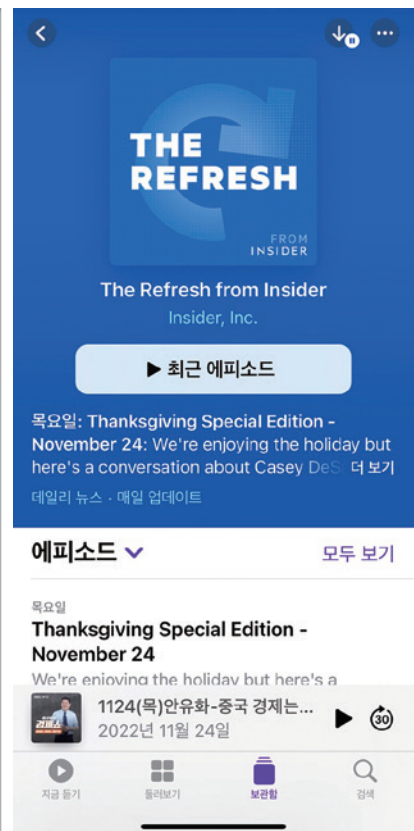


그림 10. 뉴스 팟캐스트 <The Refresh>. 팟캐스트지만 시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Spooler로 제작한다